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

등록번호	의회사무국-10825	담당자	건설교통 전문위원	건설교통 위원장	부의장	의장	결 재
등록일자	2014. 12. 24.	고병인	위관현	장제환	이화우	선재길	
결재일자	2014. 12. 24.	협 조 의회운영위원장 우영택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정팀장 김종학 의회운영전문위원 고영일 의사팀장 이정범					
공개여부	공 개						
담당 부서	전문위원 : 위관현 담 당 자 : 고병인						

2014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기간: 2014. 11. 2.(일) ~ 11. 7.(금) [4박 6일]
- 연수국가: 호주(시드니, 캔버라)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14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목차

I. 연수 개요	3
II. 연수 주요 일정	4
III. 방문국 및 방문도시 현황	6
IV. 방문기관별 연구 내용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10
□ 오페라하우스	12
□ 시드니 물재활용 시설	13
□ 캔버라 도시계획관	14
□ 홈 월드	16
□ 로즈 워터사이드	17
□ 뉴잉턴 빌리지	16
V. 방문성과 및 시사점	19

2014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 연수개요

가. 연수기간 : 2014. 11. 2.(일) ~ 11. 7.(금) 【4박 6일】

나. 연수국가 : 호주 [시드니 / 캔버라]

다. 연수목적

- 호주의 도시 건설, 미관, 관리 등 주요 시설 견학과 문화 탐방을 통해 국제적 시각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호주의 우수한 선진 도시 계획, 소방 관련 시설 및 운영 계획, 생활 문화 등을 견학과 체험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경험으로 고양시가 보다 내실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함.

라. 연수대상 : 14명(의원 9명,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1명, 직원 3명)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한 글	영 문			
1	의 장	선 재 길	SUN/JAE GIL	남	550329	
2	건설교통 위원장	장 제 환	JANG/JE HWAN	남	671030	
3	부위원장	김 미 현	KIM/MI HYUN	여	700920	
4	위 원	고 종 국	KO/JONG KUK	남	541122	
5	위 원	김 운 남	KIM/WOON NAM	남	680622	
6	위 원	김 필 레	KIM/PIL RYE	여	571120	
7	위 원	김 혜 련	KIM/HE YUN	여	761109	
8	위 원	유 선 중	YOO/SUN JONG	남	550909	
9	위 원	이 영 훈	LEE/YOUNG HUN	남	570320	

연번	직 위 (직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한 글	영 문			
10	의회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 종 경	LEE/JONG KYONG	남	580504	
11	건설교통 전문위원 (시설사무관)	위 관 현	WI/KWAN HYUN	남	610808	
12	주무관 (행정주사보)	고 병 인	KO/BYEONG IN	남	760623	
13	주무관 (속기주사보)	한 상 윤	HAN/SANG YOON	여	690909	
14	주무관 (행정주사보)	이 해 원	LEE/HAE WON	남	710324	

바. 연수자 개인별 업무부여

연번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비 고
1	의 장	선 재 길	연 수 단 장(연수단 업무 총괄)	
2	건설교통 위원장	장 제 환	방문기관 행사 진행 및 일일전달회의 주관	
3	부위원장	김 미 현	공공시설 도시 계획, 관리 운영 실태 및 도시 재개발 사업 연구	
4	위 원	고 종 국		
5	위 원	김 운 남	공공시설 도심 경관 및 교통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 실태 연구	
6	위 원	김 필 례		
7	위 원	김 혜 련	호주 의회 제도 연구	
8	위 원	유 선 중	도시 계획 및 도심 개발 사업 및 관리 실태	
9	위 원	이 영 훈		
10	의회사무 국장	이 종 경	연수단 실무 인솔 책임	
11	건설교통 전문위원	위 관 현	호주 건설교통의 전반적인 연구 및 자료 수집	
12	주무관	고 병 인	의원 연수 보조, 방문기관 일정 협의	
13	주무관	한 상 윤	의원 연수 보조, 기념 촬영	
14	주무관	이 해 원	의장 수행 및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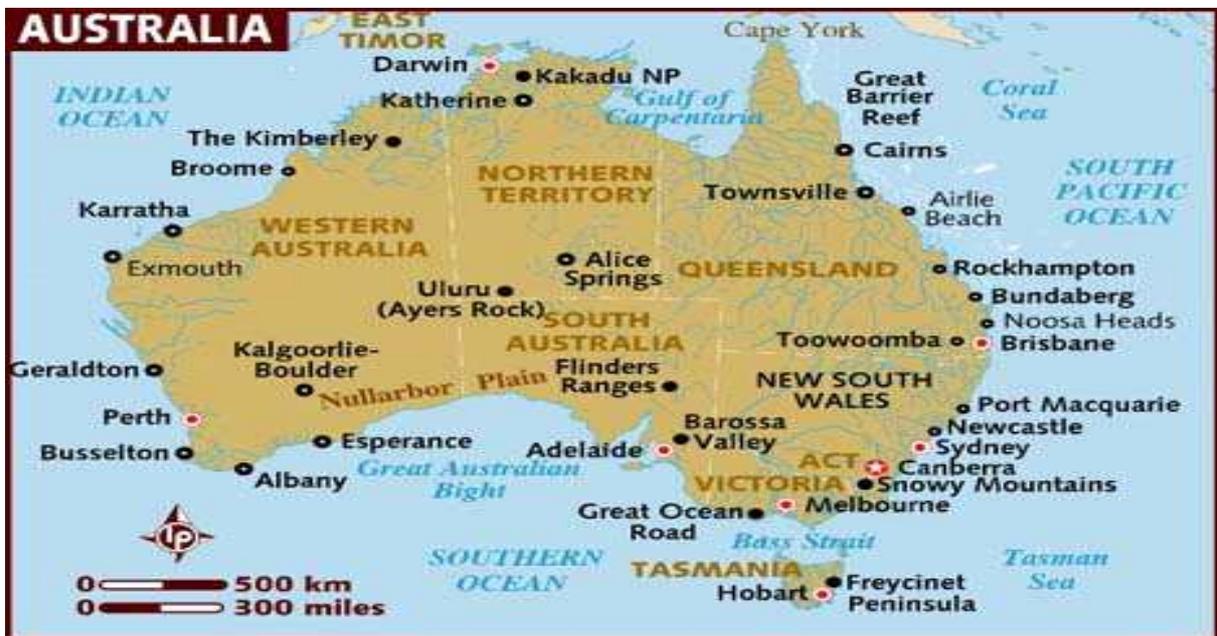
2. 연수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

월 일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11/2(일)		인천공항 ↓ 시드니
제2일 11/3(월)	○ [연수 1] 스트라스펠드 시의회 ▶ 개 요 : 호주 의회 제도 및 브리핑 및 질의응답(총 2시간소요)	
제3일 11/4(화)	○ [연수 2] 오페라하우스 ▶ 개 요 :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된 20세기의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건축물 ○ [연수 3] OLYMPIC PARK 물재활용시설 방문 ▶ 기 관 : OLYMPIC PARK ▶ 개 요 : 시드니의 물재활용 처리 시설물 견학	
제4일 11/5(수)	○ [연수 4] 캔버라 도시 계획관 ▶ 개 요 : 캔버라의 역사와 도시계획관에 관련한 전반적인 소개 브리핑	
제5일 11/6(목)	○ [연수 5] HOME WORLD 방문 ▶ 개 요 : 시드니의 우수 주택 디스플레이 하우스 방문 시찰을 통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연수 6] Rhodes Waterside ▶ 개 요 : 시드니의 대표 건축물 견학 ○ [연수 7] Newington Village (뉴잉턴 빌리지) ▶ 개 요 : 생태계 환경재생과 재활용수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 관련 브리핑	
제6일 11/7(금)		시드니 ↓ 인천공항

3. 방문국 및 방문도시 현황

가. 방문국(호주) 현황

- ◆ 수도 : 캔버라(Canberra)
- ◆ 면적 : 7,741,220km²(한반도의 약 35배)
- ◆ 인구 : 23,685,000명(2014년 10월말 기준)
- ◆ 민족 : 영국계(77%), 유럽계(21%), 아시아계(21%), 원주민(2%)
- ◆ 언어 : 영어(English)
- ◆ 종교 : 카톨릭(26.4%), 성공회(20.5%), 그리스도교(20.5%)



□ 개요

호주는 인구가 약 2,368만 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정확한 국가 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 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로 인구가 약 440만 명이고, 인구 400만 명의 멜버른(Melbourne), 인구 206만 명의 브리즈번(Brisbane)이 그 뒤를 잇는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정확한 명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인구는 36만 명 정도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 지리

호주의 면적은 7,741,220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 고도는 300m이다.

□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이다. 봄은 9 ~ 11월, 여름은 12 ~ 2월, 가을은 3 ~ 5월, 겨울은 6 ~ 8월이며,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전체 대륙이 남위 10.41° ~ 43.39°에 걸쳐 있어 여러 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우림기후, 열대성기후, 아열대성기후, 온대성기후로 나뉘어진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기후의 특징이다.

서부의 40%, 북부의 80%는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

- 육지의 30%가 사막
- 봄(9 ~ 11월), 여름(12 ~ 2월), 가을(3 ~ 5월), 겨울(6 ~ 8월)
- 평균 해발 300m이하[최고 코지오스코 산(Mt. Kosciuszko) 2,228m]
- 연평균 강수량 : 465mm(전국적으로 100mm ~ 2,000mm 분포)

□ 정부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현재 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다. 다시 말해서 호주는 입헌군주 국가이며 쉽게 말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지만 호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는 2013년 취임한 자유당 대표인 토니 애벗 총리이다.

□ 사회

전체인구의 98% 이상이 백인이며, 호주의 한국 교민은 2013년 현재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주 호주대사관자료). 사용언어는 영어로 영국 영어에 가깝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나. 방문도시현황

1) 시드니

○ 위 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면 적: 12,144km²

○ 인 구: 4,391,673(2011년)

○ 기 후: 온화한 기후로 연간 평균기온은

17.6℃, 가장 더운 달이 21.9℃, 가장 추운 달이 12.3℃로 연교차가 적다.

연평균강수량은 1,205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함.

○ 지역의 특징

- 시드니는 전국 인구의 약 1/6이 몰려 있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이면서 최대 상공업도시로 섬유·제분·정당(精糖)·피혁·기계·화학·자동차·조선·정유(精油)·제재(製材)·제지·차량·농기구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음.
- 금융기관·회사 사무실·백화점·고급상점이 있는 도심 바깥쪽에는 조용한 주택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포츠포인트 등이 최고급 주택지로 알려져 있음.
- 시드니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며, 시드니대학(1850년 창립)·뉴사우스웨일스대학·로마가톨릭교회·성공회교회·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국립미술관·도서관 등이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1973년에 완성되었음.
- 시내에는 2개의 국립공원(300km²)과 자연보호지 이외에 하이드파크·센테니얼파크 등의 공원·정원과 각종 경기장이 있으며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음.

2) 캔버라

○ 위 치: 호주 수도로 준주의 북쪽 끝

○ 면 적: 814.2km²

○ 인 구: 356,586명(2011년)

○ 기 후: 캔버라는 비교적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내륙의 고원 지대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더운 여름과 호주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한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음.

○ 지역의 특징

- 캔버라(Canberra, 문화어: 캔베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로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고, 캔버라의 거주민을 "캔버란(Canberran)"이라고 함.

- 이 도시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의 북쪽 끝에 있으며, 시드니에서 남서쪽으로 280km, 멜버른에서 북동쪽으로 660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의사당을 포함하여 연방정부 산하 행정기관 대부분이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음.

4. 방문 기관별 연구 내용

[연수 1] Strathfield(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에 소재한 중규모의 시의회로서, 벨필드(Belfield), 플레밍턴(Flemington), 그린에이커(Greenacre), 홈부쉬(Homebush), 홈부쉬 웨스트(Homebush West), 스트라스필드 사우스(Strathfield South)와 같은 시외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스트라스필드시의 구역은 14.1 km²로, 약 37,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지방 정부로, 도시 계획 및 건축 허가, 도서관, 지역사회 시설, 공원 및 특별보호구역, 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 도로 인도 및 수목, 식품 안전 및 축제,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스트라스필드시는 다문화지역으로 변해가기 시작해 현재 주민의 50%이상이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유럽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중국, 인도, 한국 사람들이 3대 이민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 한인 최초로 권기범 변호사가 의원 배지를 달았고 2008년에 재선에 성공한 후 시의회 의장겸 시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지금은 2012년에 당선된 옥상두 의원이 근무하고 있어 옥의원을 만나 함께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의 주요 사업과 의회제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 호주(스트라스필드) 의회제도의 특징

- 주민이 선거를 통해 임기 4년의 시의원을 7명을 선출하고, 시의원들이 모여 해마다 7명중에 임기 1년의 시장, 부시장 선출한다.
- 계약기간 5년의 행정부시장이 행정부를 관장하면서 의회와 상호 공생하고 있기에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 시의원은 월급이 없고 봉사직이지만 회의참가수당 정도의 돈을 매달 받음.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건축경영으로 흑자 운영을 하고 있어 주민세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의회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 보조를 받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지역도 있다.



[연수 2] 오페라 하우스

1973년에 문을 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는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9석의 음악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다.

이 건물의 특이한 지붕 모양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의 우승작 작가인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론 우촌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던 도중에 떠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적으로 원형의 모양인 바깥 표면은 자주 그 곳을 향해하는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한다.

발레와 음악 공연, 오페라가 열리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극단, 시드니 극장단, 시드니 교향 관현악단의 상주지이며 뉴사우스웨일스 주 문화부 장관 산하 기구인 오페라 하우스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되었으며, 비록 많은 관광객이 공연 관람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드니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 지역도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가 있어 공연이 많이 열리지만, 고양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투어 프로그램, 시티투어버스 운행 및 고양 꽃내음 관광벨트 조성 등과 연계한 시책과 비교체험하였다.



[연수 3] Sydney Olympic Park (시드니 물재활용 시설)

시드니 올림픽파크는 수십 년간 각종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에 조성된 공원으로 공원 중심부에는 대형 인공언덕들이 있으며 이 인공언덕들 내부에는 수만 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묻혀있어 다량의 매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공원 내부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빗물과 폐수를 정화시켜 하루 7백만L의 물을 절약하여 선수촌에 세탁용수, 화장실 변기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 도시물 재활용시스템을 확립하여 매년 850백만L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

곳곳에 조성된 호수도 이러한 하수를 처리한 물로 운영하며, 호수가 고여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이용한 펌프로 정화필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 유수의 대학인 시드니대학에서는 환경학과의 실습장을 공원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등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부지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임에도 아직 물을 아껴쓰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지만, 빗물을 활용하거나 하수도를 중수도로 정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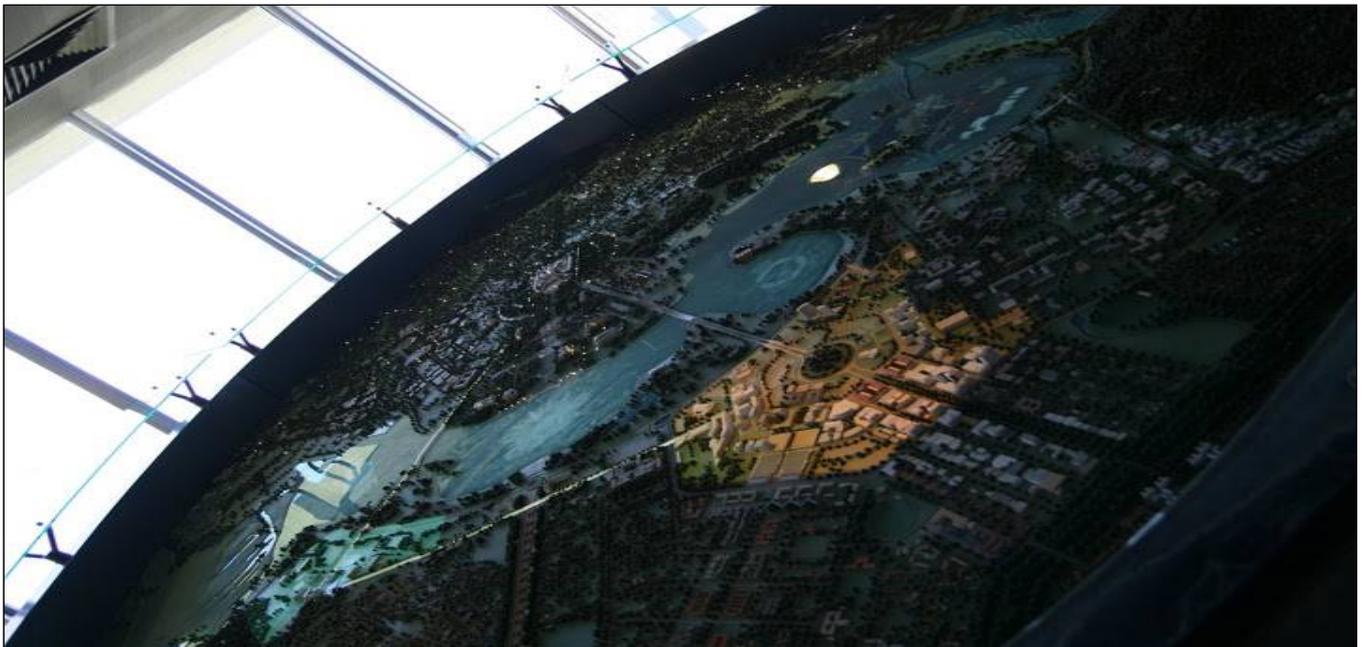


[연수 4] 캔버라 도시계획관

1901년 1월에 호주 식민지들은 10여 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이 국가는 현실적인 고려와 정치적 이상을 합친 결과였다.

새로 형성된 호주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수도가 될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과업에 착수하여 1912년 미국 건축가 왈터 벌리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이 호주 수도 국제 디자인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였다.

왈터 벌리 그리핀의 플랜의 초점은 몰롱글로 강을 따라 운치 있는 호수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멋진 호수의 파노라마는 1964년 강을 댐으로 막음으로써 벌리 그리핀 호수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했다.



[캔버라 조감도]

이중환상 구조에서 중앙의 오픈스페이스는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으나 환상형의 교통축으로 인해 교통소통 지연과 이동거리 연장 등의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또한, 환상형 구조는 도시중심기능이 약화되어 도시발전·성장에 다소 불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캔버라의 지역 정치인들은 건설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가 기능을 수도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의사당, 전쟁기념관, 국립미술관 등의 국가시설·기능을 입지시키고 상징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불거리 확보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증대함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통합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의 행정수도를 조성할 때 캔버라의 도시계획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인구가 10만여 명이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꾸준히 이전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는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연수 5] HOME WORLD(홈 월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구상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용 빌리지로서 80년대 중반부터 개발하여 현재 홈월드에는 5~6차 이상 부지인 시리즈 개발단지 가격대비 땅값 제외한 건설비만 \$115,000 부터 \$700,000 이상의 럭셔리 호화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국내의 Housing Awards 수상경력이 있는 주택전문빌더 35개 회사가 합작하여 단지마다 평균 120가구의 세일즈 목적의 걸치레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하우스를 완공하였다.

전시기간 5~6년 후에는 일반 입주자에게 판매하여 자연스레 쇼핑센터와 함께 120단지의 뉴타운이 형성된다.



[연수 6] Rhodes Waterside(로즈 워터사이드)

파라마타 강(Parramatta River)를 따라 홈부쉬 베이(Homebush Bay)와 브라이스 베이(Brays Bay)를 끼고 ‘도심 속의 해변’이라는 환상적인 조망을 자랑하는 로즈(Rhodes) 반도에 지난 1990년대 말 주 정부 도시 신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10개 주거 지역과 대규모 상가 및 오피스 건물,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 등 그야말로 작은 도심을 하나 건설하는 것과는 맞먹을 정도로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었다.

‘Walker Co.’가 개발하고 ‘Richard Huxley & Associates’ 사가 설계를 맡은 이 주택 단지는 총 223개의 단층 및 2층 아파트, 테라스 홈, 테라스 스타일 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의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오염된 늪지대와 강물을 재개발하여 호주인들이 선호하는 베란다 앞에서 물이 보이는 Water View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단지과 상가,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속속 들어서게 됨에 따라 로즈 반도는 시드니의 새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신부촌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과 환경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로즈 워터사이드 지역은 환상의 주거 환경을 배경으로 평균적으로 자녀2명 미만의 젊은 부부나 은퇴한 노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연수 7] Newington Villiage (뉴잉턴 빌리지)

뉴잉턴 신도시는 호주의 대표적인 건설사 중 하나인 머백(Mirvac)과 랜드 리즈(Landlease)에 의해 개발됐다. 호주인들이 주택 건설에 가장 중요시 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여 설계 개발됐으며, 에너지 재활용과 건축 자재의 선택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건설사와 정부의 확인절차 후 완공됐다. 예를 들자면 빗물 재활용과 태양열을 최대한 사용함과 동시에 단지내에 호주 자연산 나무들을 심도록 해 호주 자연의 특징을 최대한 살렸다.

뉴잉턴 빌리지의 건축의 중대한 요소는 각 주거지의 크기였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범위에서 골목길이 복잡하지 않아 주민들이 쉽게 길을 알 수 있게, 각 주거지에서의 탁 트인 전망과 최대한 일조량을 만들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뉴잉턴 지역 주민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위치한 올림픽 단지를 들 수 있다. 골프, 수영, 테니스 등 최상의 시설을 갖춘 체육관과 대형 콘서트홀, 그리고 녹지대로 어우러져 있는 공원들은 뉴잉턴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뉴잉턴에는 현재 약 5,000세대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가족 단위 혹은 싱글족에게 역시 인기가.



5. 방문 성과 및 시사점

스트라스필드시의회에서 만난 옥상두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열정적인 모습에서 행복한 한인들과 스트라스필드시의 행복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으며, 그는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스트라스필드시의회는 올림픽공원 입구에 있는 브레싱턴 파크(Bressington park)라고 하는 만 평 부지에 한국기념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호주와 한국 양국간의 독특한 역사를 상징하게 되고 지역적으로는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올해 4월 1일 스트라스필드시의회 회의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입장을 요청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의견서를 받은 후 다시 소녀상 건립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 이는 스트라스필드시 위안부 소녀상 건립문제로 일본총영사가 시를 방문하는 등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반대를 한 결과이다.

위안부 소녀상 건립 위원회는 3인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시작했으며, 한국인과 중국인, 호주인 소녀상으로 2차 대전 당시 호주출신으로 한 명의 정신대 소녀(안 루프 오현)가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 고양시도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13만 명의 서명부를 스위스 제네바 UN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송부하고, 위안부라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문제를 UN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호주에서의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되기를 응원해 주었다.

고양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90년대 초 정부주도하에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어 2014년 8월 1일 인구 100만이 넘는 10번째 자치단체가 되었다.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대두되고 있지만, 홈월드, 로즈 워터사이드, 뉴잉턴 빌리지 등을 보고 단독주택단지 등의 실용적인 수요자중심의 주택정책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은 UN이 지목한 물 부족국가임을 감안할 때 시드니 올림픽 파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연간 850백만 리터의 하수를 처리하여 호주 최초로 건설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올림픽파크 내 각종 중수도를 공급하여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체용수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빌리지 그린(Villiage Green)에서는 매년 100만 리터 이상의 하수를 자체처리하고 있고, 시설은 지하에 조성되어 있으며 지상은 잔디구장으로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깨끗한 해변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지방자치는 기관통합형으로 의원들간의 투표로 시장을 선출하고 서로 겸임하며 의원과 시장은 명예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총책임자(일명 행정부시장)를 의원들이 임명하고 실적에 따라 연임과 연봉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총책임자는 CEO형 공직자로서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우리의 공직자상과는 다른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